

03 2028 대 입 · 고 교 학 점 제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통합형 수능이 뜻하는 것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달라지나	3
03 그러면 학교 과목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선택과목 폐지 **전후 대조표** — 국어·수학·탐구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
- ◆ **얻는 것과 잃는 것** — 과목 유불리는 사라지고, 범위는 넓어집니다
- ◆ 가장 흔한 오해 — **수능에서 빠져도 학교에는 남습니다**
- ◆ 과목을 고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점검표**

01 · 먼저 사실부터

고민 하나가 사라집니다

「미적분을 해야 하나 확률과통계를 해야 하나.」

고1 겨울마다 되풀이되던 고민입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이 고민이 없어집니다.**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두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지금 제도에서 이 고민이 왜 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에서 센 바로는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입니다.

고1에 고른 과목이 고3의 지원 자격을 정했습니다.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8부터
국어	화법과작문 · 언어와매체 택1	공통
수학	확률과통계 · 미적분 · 기하 택1	공통
탐구	17과목 중 택2	통합사회 · 통합과학

고르는 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까」에서 「무엇을 얼마나 깊게 할까」로 물음이 바뀝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및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지정과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이며 개편 뒤에는 달라집니다.

02 · 무엇이 달라지나

얻는 것과 잃는 것

얻는 것	잃는 것
과목 유불리가 사라집니다	잘하는 과목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고1에 큰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잘못 골라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깊이로 차이를 내기 어렵습니다

왼쪽 첫 줄이 가장 큼니다

지금은 어느 과목을 골랐느냐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과목을 본 학생이 유리해지는 해가 있고, 그 반대인 해도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점수가 갈리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같은 시험, 같은 잣대가 됩니다.

오른쪽 둘째 줄이 실제 부담입니다

탐구가 17과목 중 2과목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이 됩니다. 두 과목만 깊게 파던 것을 사회·과학 전반으로 봐야 합니다.

깊이는 알아지고 넓이는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한 과목을 아주 잘하는 학생보다 고르게 아는 학생에게 맞는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깊이를 보일 자리가 줄어들면, 깊이는 학생부에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목 이수와 세특이 그 자리입니다.

다만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03 · 그러면 학교 과목은

수능과 학교는 다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를 풀어 두겠습니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진다고 학교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학교
과목	공통 — 선택 없음	고교학점제로 골라 듣습니다
미적분 II · 기하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어디에 남나	수능 점수	학생부 이수 기록

둘째 줄이 핵심입니다. 심화수학은 수능에서 빠질 뿐 학교 교육과정에는 남습니다. 이공계를 갈 학생은 여전히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이 학생부에서 그 이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능에 안 나오니 안 들어도 된다」가 성립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 공통이 되면 수능으로는 학생을 가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다른 자료를 봅니다 — 학생부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무엇을 골라 들었는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입니다. 앞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무엇을 반영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수능 과목 고민을 접습니다	고를 것이 없습니다
2	학교 과목은 진로 로 고릅니다	수능 유불리가 아니라
3	통합사회·통합과학 을 넓게 봅니다	1학년 공통과목입니다
4	이공계면 심화 과목 을 학교 에서 들습니다	학생부에 남습니다

2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고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기준은 「내 진로에 필요한가」 뿐입니다.

이건 오히려 건강한 방향입니다. 다만 진로를 더 일찍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목을 고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수능에 **선택과목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심화수학**이 학교에는 남는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교 과목을 **수능 유불리**로 고르고 있지 않은가
- ☐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 되는가
- ☐ **통합사회·통합과학** 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아는가
- ☐ 이공계라면 **심화 과목**을 들을 계획인가
- ☐ 「수능에 안 나오니 안 듣는다」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여덟째를 조심하십시오. 수능에 안 나와도 학생부에는 남고, 대학은 학생부를 봅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그 과목이 필요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이 필요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학원과 컨설팅이 값을 받던 자리였습니다 — 과목 유불리를 계산해 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계산이 없어집니다. 남는 물음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고, 그건 저희보다 부모님과 아이가 더 잘 아십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선택과목 폐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수학이 쉬워지는 건가요?

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심화수학이 빠지니 다루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그 안에서 변별을 해야 합니다. 범위가 좁아진 만큼 그 안에서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기출이 없고, 첫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출제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쉬워지니 부담이 준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확실한 것은 「고를 것이 없다」 뿐이고, 얼마나 어려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Q. 이제 이과·문과 구분이 없어지나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되는 방향입니다. 같은 시험을 보니 수능 성적만으로는 이과·문과가 안 갈립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계열로 뽑습니다. 공대는 공대이고 인문대는 인문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릴까요.

남는 것은 학생부의 이수 과목과 세특입니다. 이공계 과목을 듣고 그 결의 활동을 한 학생인지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어진다」기보다 「구분이 수능에서 학생부로 옮겨간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저희 판단이고, 대학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능에서 고를 것이 없어지면 학교 과목을 진로로 고르게 됩니다. 「수능에 유리한 과목」이라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난이도와 대학 반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